혼미노시/미노 일본 종이 도구 박물관 후쿠베

미노와시는 매끈하고 불순물이 없는 외관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노와시를 만들려면 우선 지리토리라는 작업으로 인피 섬유 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섬유를 엮은 바구니에 넣고 충분한 자연광 아래에서 흐르는 물을 사용해 수작업으로 선별합니다. 지리토리용 바구니와 종이를 뜨는 다케스(대나무 발)가 뒤편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벽에 전시되어 있는 다케스는 섬유를 섞은 액체를 떠서 균일하게 펴는 중요한 공정에 사용됩니다. 다케스는 대나무를 쪼개고 잘라 가공한 대쪽 약 3,000 개를 명주실로 엮어 게타라고 하는 나무 틀에 고정한 것입니다. 게타는 편백나무로 만들어 반복해 물에 담가도 견딜 수 있습니다.

앞쪽에는 닥나무 껍질 섬유를 부드럽게 풀어헤치기 위한 여러 도구와 기계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이 작업을 손으로 했던 무렵에는 기즈치(나무 망치)나 긴 막대기를 사용했지만, 20 세기 초엽에 증기를 사용해 긴 칼날을 회전시켜 섬유를 풀어헤치는 기계가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혼미노시를 만들 때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수작업으로 인피 섬유를 두들겨 풀어헤칩니다. 이때 사용하는 기즈치 표면에는 국화 무늬가 새겨져 있어서 섬유가 기즈치에 붙지 않게끔 고안되어 있습니다.